병오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불기 2570년 백중을 맞이하여 선망조상과 일체유주 무주 고혼영가 및
모든 인연 영가님들을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백중기도는 부처님의 십대제자중의 한분이신 목련존자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49재를 올려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어머니이신 청제 부인을 구제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백중기도는 불보살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원력으로 영가님들의 누겁에 쌓인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삼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취케 하고 나아가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서원의 기도입니다.
속리산 大법주사에서 올리는 정성스러운 재와 백중 49일간의 특별기도에 함께하시어
신도님과 신도님 주변의 모든 인연에게 자비가 충만하시고 무량복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49재 일정

입재 : **7**월 **10**일(음 5월 26일) 금요일	
초재 : **7**월 **16**일(음 6월 3일) 목요일	
2재 : **7**월 **23**일(음 6월 10일) 목요일	
3재 : **7**월 **30**일(음 6월 17일) 목요일	
4재 : **8**월 **6**일(음 6월 24일) 목요일	
5재 : **8**월 **13**일(음 7월 1일) 목요일	
6재 : **8**월 **20**일(음 7월 8일) 목요일	
회향 : **8**월 **27**일(음 7월 15일) 목요일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위패비 **2**만원 / 영가기도비 - **3**만원
(49일간 영가님을 위해 연화백등을 밝혀드립니다)

※불보살님과 영가님을 위해 매 제사때 공양을 올리실 설판재자 시주받습니다.

■ **접수안내** : 大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구지 선사의 일지두선 一指頭禪 (2)



〈지난 호에 이어서〉

"거기 좀 서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이르면 서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때 천룡 화상이 손가락을 하나 번쩍 들어 보였다.
이것을 본 순간 구지 선사는 문득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뒤로부터 가르침을 얻으려고 구지 스님을 찾는 이가 있으면 구지 스님은 한결같이 손가락 하나만을 세울 뿐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먼 곳에서 구지 선사에게 어떤 거사가 법을 물으러 왔다. 마침 선사는 출타하고 시중드는 어린 동자만이 암자를 지키고 있었다.
"오직 법을 묻기 위하여 일부러 먼 길을 왔는데 스님이 안 계시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우리 스님의 법문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님에게서 들으시나 저에게서 들으시나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들은 바가 있어 저도 스님처럼 법문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저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참다운 도리인지를 물으십시오."
"어떤 것이 참다운 불법의 도리입니까?"
이렇듯 정중하게 법을 청하자 어린 동자는 구지 선사가 하듯 곧바로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스님께서는 누가 와서 법문을 물을 때마다 한결같이 손가락을 세워 보일 뿐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을 얻으러 왔던 사람은 의아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볼일을 보고 절에 돌아온 선사는 동자에게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스님께서 안 계실 때에 어떤 손님이 법문을 듣고자 왔습니다. 제가 대신 법문을 해주었습니다"
"잘했구나. 그래 어떻게 해주었느냐?"
"스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손가락을 세워 보였을 뿐입니다."
"아까 한 법문을 나에게도 한번 해다오.
어떠한 것이 불법의 참다운 뜻이냐?"
그러자 동자는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그 순간 구지 선사는 동자의 손가락을 거머쥐고 칼로 잘라 버렸다.
동자는 아야 아야 하고 울며 달아났는데 그러한 동자를 보고 구지 선사는 말하였다.
"동자야, 어떤 것이 불법의 참다운 뜻이냐?"
이 소리에 동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던 버릇대로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려했으나 이미 손가락은 없었다.
그 순간 동자의 마음이 활연히 열리었다.
구지 선사는 입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천룡의 한 손가락 선법禪法을 받고서 일생 동안 썼으나 다하지 않았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6 6 | 통권 413호



2 **벽화이야기** 구지 선사의 일지두선 (2)
4 **이달의 법문** 하안거 결제, 마음의 빗장을 걸고 참나를 찾아서 大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인연을 따라, 나를 비우고 세상을 살피다 정덕 스님
8 **수행여화** 초속 5센티미터 현진 스님
10 **걸망메고** 대한불교조계종 성립 과정(3) 진천 스님
11 **인도 건축미술 순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안필섭
14 **경전구절산책** 부처님의 탄생과 나의 출생 원경 스님
16 **따뜻한 신행단체**
17 **국악합창단 단원 모집**
18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19 **나한도량 성지순례안내 / 大법주사 행사일정**
20 **大법주사 소식 / 말사소식**
21 **미륵재일기도 / 지장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22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안내**
23 **승려복지 후원 안내**
24 **병오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6월호 통권 413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보은 라 00002)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인 · 정덕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大법주사

하안거 결제, 마음의 빗장을 걸고 참나를 찾아서

지명대종사 大법주사 조실



산천에 녹음이 짙어지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녹음방초綠陰芳草의 계절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 생명력을 뿜어내어
세상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지만,
우리 불자들은 이제 그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불기 2570년 하안거 결제夏安居 結制를 맞아,
전국의 선방에서는 수많은 수좌들이 깨달음을
향한 용맹정진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안거란 밖으로 내달리는 생각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내면의 본래 면목을
마주하겠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결제는 단순한 형식적 닫힘이 아니라,
번뇌와 아집에 사로잡힌 낡은 나를 버리고
참된 나로 거듭나기 위한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불성을 지녔다는
사자후입니다.
우리가 동안거와 하안거를 거듭하며 정진하는
이유도 바로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이 거룩한 보배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경계에 휘둘리며 환경의 노예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결제를 맞아 수행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제보다 새로워졌는가?
내 마음의 겨울잠은 깨었는가?"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진이 필요합니다. 수행자의 자세는
법당 앞 목어木魚와 같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밤낮으로 눈을 뜨고 잠들지 않듯이,
우리도 일상의 번뇌 속에서 한순간도 깨어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눈을 감으면 어느새 무명無明의 어둠이 우리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진정한 힘은 고요한 방에 앉아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자리로 돌려놓는
그 끈기, 일어나는 생각을 탓하지 않고 살피는 그 정성, 그리고 그 정성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수행은 잘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마음이 어지러운 법이니,
오늘 할 정진을 오늘 하는 그 단순하고 꾸준한 실천이 핵심입니다.
안거 기간 동안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훈인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의 가르침을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외부의 힘이나 화려한 명성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과 법을
유일한 의지처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세상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것은 방황에 불과합니다. 청명한 하늘이 만물을 차별 없이 비추듯,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이미 우리 가슴속에 충만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집이라는 두꺼운 구름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하안거를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고 맑고 향기로운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나만의 해탈을 구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동체대비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선방의 스님들이 대중을 위해 정진하듯,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타적인 보시행을
실천할 때 안거의 공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는
중도中道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그 찰나가 바로 부처님과 마주하는 순간이며,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속리산의 푸르름이 날로 깊어지듯이, 大법주사 사부대중 여러분의 신심과 원력도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정진의 길을 따라, 늘 깨어있는 지혜와 쉼 없는 노력으로 일상의 고통을
넘어서는 복된 인연을 맺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가득하고,
이번 하안거 석 달 동안 마음속에 심은 지혜의 씨앗이 마침내 깨달음의 꽃으로 만개하는 향기로운 수행정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정진하십시오. 마음을 닦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머지않아 여러분을 불국토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부처님 전에 축원드립니다.

인연을 따라, 나를 비우고 세상을 살피다

정덕 스님 大법주사 주지



신록이 짙어져 가는 계절입니다. 부처님 법안法眼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계절의 변화 또한 수행의
가르침이 됩니다. 봄이 생명의 싹을 틔우는 때라면, 초여름은 그 생명이 자라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한 해의 절반 정도를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살펴보고 남은 시간을 더욱 뜻있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곡식은 하루아침에 익지 않고,
나무의 그늘도 오랜 세월 햇빛과 비바람을 견딘 뒤에 생겨납니다. 수행 또한 그러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여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생각 생각을 바르게 세울 때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초여름의 들뜬 기운과 눅눅한 공기 속에서 마음은 산란해지기 쉽고, 말과 행동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환경에 흔들리기보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며, 이 균형 속에서 평안은 싹틉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이웃,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뜻에 맞지 않는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그 화를 곧장 따르지 말고, 불안이 밀려올 때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6월은 지난 시간을 점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 세운 서원과 다짐 가운데 무엇을 지켰는지,
어떤 마음이 흐트러졌는지, 무엇을 새롭게 발원할 것인지 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성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걷기 위한 지혜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꾸준히 이어갈 때
인생은 서서히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하루도 우연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입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잠시 합장하고
숨을 고르며,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멀리 있는 해탈만을 찾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부처님 길입니다.
초여름의 햇살처럼 밝고, 장맛비 뒤의 풀잎처럼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발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보살피며, 가정과 도량에 평안과 웃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한결같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큰 길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정진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초속 5센티미터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지난주는 그리 화사하게 축제를 벌이더니
이번 주부터는 벚꽃엔딩이다.
눈보라처럼 바람에 흩날리며 분분히 낙화하고 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청춘이 지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풍광을 화취설花吹雪이라
표현한단다. 꽃송이 송이가 흩뿌려져 연분홍 카펫을
펼쳐 놓은 것 같다. 일본 영화에서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5센티미터'라고 하더라.
그 속도로 꽃잎이 한 장 한 장 지며 봄날을
장식하는 것이다. 연인들이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감정도 그만큼의 속도일까.
꽃도 피고 지는 시기와 방식이 다르다.
이를테면 벚꽃이나 살구꽃은 꽃잎이 허공으로
부서지며 떨어지지만 동백이나 능소화는
꽃송이 채로 툭 떨군다. 그러나 메리골드나
구절초는 꽃은 지지 않은 채 씨를 달고 있으며
목련은 꽃잎마다 멍들 듯 시들며 낙화한다.
이렇게 서로서로 다르게 생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사 또한 위기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 닭은 추우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내려간다. 일률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적용하며 자기 기준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단편적이라 내 방식이
다 옳을 수 없는 것.
호박은 둥글며 무겁지만, 도토리는 작고 가볍다.
만약 호박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다고 생각해보라.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것이 떨어지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기 생존하는 이치와 이유가
다른 것이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가 길게 하면
오히려 화근이 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주면
그게 근심이 되는 법.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 그 인생의 정답인지도 모른다.
능력과 기량만큼 지니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개성과 성격대로 살면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내가 키 크고 인물 좋았다면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을까. 뭐든 만족스럽지 못한 지금의 조건이
어쩌면 매력이며 장점이 될 수 있다.
나는 연말이 되면 법석에서 이런 말을 덧붙인다.
"지난 일 년 동안 나에게 서운하거나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모두 풀어라. 그것은 '그때의 상황'이
나빴을 뿐 '지금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지닌 채 미워하지 마라"
그 상황이란 것은, 그때 내 기분이 별로였거나
말문을 닫고 싶을 때 등을 말한다. 그 순간의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나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말을
걸어도 무표정했거나 외면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건 나의 진짜 표정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다만 상황이 어려울 때 시공에 함께 있었을 뿐이다.
이런 오해와 갈등은 그냥 두면 골이 깊어지기에
어느 시점에서 풀어야 좋다. 근래 나이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둔 빚이나 짐이 있으면 사과를
먼저 청하거나 내려놓는다. 그 시기를 미루다가



결국 기회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어찌 완벽하다 할 수 있겠는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숙한 인격자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길에서 어떤 사건은 반드시 교훈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선생'이고 '스승'이 되었다는 점이다.
삶이 그것을 가르쳐 준 셈이다.
지난주엔 교토를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춘심이
신록처럼 번지고 있어서 반가웠다. 벚꽃 피는
시기를 딱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낙화의 순간을
즐기고 왔다. 그 장면을 보며 '개화만 봄이 아니라
낙화도 봄 풍경이다'는 명제를 떠올렸다.
은각사 철학의 길 벚꽃은 강물에 떨어져 그 빛깔이
온통 분홍이어서 '두 번째 개화'라 할 정도로
장엄함을 연출했다.
한껏 기대하고 방문했던 제호사醍醐寺 능수벚꽃은
다 폐막하고 그 화려한 시간에 동참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동사東寺의 벚꽃 야경은 그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발품이 아깝지 않았다.
그 황홀경에 빠져 탄성을 지르며 배고픈 것도
잊었다. 이번 일정은 교토의 봄을
마중하러 간게 아니라 봄을 배웅하고 온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용안사 앞뜰의 동백을
쓸어내는 것을 보며 '꽃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봄을 배웅하는 것'이란 말을 했다.
어찌 오는 손님만 반갑다 하랴,
가는 손님도 손 흔들며 배웅해야 하리.
어쨌든 봄은 느리고 오고 서둘러 떠났다.

대한불교조계종 성립 과정 (3)

진천 스님 大법주사 부주지

조선 후기 서양 열강과 일본이 식민지 개척에 나선 개화기에 선승 경허(1846~1912) [1]이다. 깨달음 이후 자신의 법맥을 태고－서산 [2]－환성지안으로 이어진 조계종 법맥을 밝혔다. 이후 천장암과 수덕사 일대에서 혜월, 수월, 만공 등 제자를 배출했다. 1899년 가야산 해인사 조실로 추대되어 수선결사를 추진하여 선풍 진작 및 범어사, 통도사, 송광사, 선암사, 화엄사, 법주사 등 영호남 주요 사찰의 선원을 재건하였다. 이후부터 용성,[3] 금오,[4] 등 많은 선승에 의해 선풍이 살아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조계종을 재건하여 운영한 한암 종정과 지암 종무총장 등 교단 지도부는 광복이 되자 새 시대는 새 인물에 맡겨야 한다며 자진해서 종단의 운영에서 사퇴하였다.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교단을 인수한 지도부는 주로 대처승들이었다. 대처승 지도부는 초기와는 달리 교단의 개혁보다는 재산과 신도 등 사찰 운영에 있어 비합리적인 권위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이에 청년 불자들과 선학원의 선승들이 반발하여 불교계 안에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되었다.[5] 이러한 상황에서 광복 직후 한국불교의 혁신을 도모한 스님들이 있었다. 1947년 봉암사 결사를 추진한 청담, 성철, 자운 등이다. 이 스님들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광복 이후 불교계의 쇄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방법은 오로지 교리에 충실하게 부처님 법대로 사는 도량을 만들어 살아 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물색한 도량이 구산선문 전통의 경북 문경 희양산 봉암사였다. 1947년 성철, 자운, 보문, 우봉은 '봉암사'[6]로 들어가 결사를 시작했다. 청담도 합류하였다. 그 뒤로 그 수는 향곡, 월산, 혜암, 법전, 성수, 종수, 지관 등 20여 명으로 늘었다. 비구니 묘엄, 묘찬, 지영, 재영 등은 백련암에서 참여했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혼란기에 오로지 불교정신으로 살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던 결사는 1950년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승단정화운동 이후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 시대가 열린다.[7]

주)

1) 경허(1846~1912) 한국 근현대 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사. 법호는 경허鏡虛, 법명은 성우惺牛. 1대 조사인 인도의 마하가섭존자 이래 75대 조사이다.
2) 서산(1520~1604) 조선시대 《청허당집》, 《선교결》, 《심법요초》 등을 저술한 승려. 승군장僧軍將. 법명은 휴정이다.
3) 한태식, "백용성스님의 초기수행과 보광사 · 도솔암의 인연", 대각사상 제12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12., 71-121면.
4) 금오(1896~1968) 근현대 한국불교의 기둥, 불교정화운동의 선구자이며 대선사. 부종정 역임 법호 금오金烏, 법명은 태전太田이다.
5) 제점숙, "식민지 조선과 불교 - 근대기 대처승帶妻僧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불교계의 동향 -", 대각사상 제2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4.12., 241-278면; 김광식, "식민지(1910-1945) 시대의 불교와 국가권력, 대각사상 제13집, 대각사상연구원, 2010.6., 9-47면.
6)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신라 선문구산禪門九山의 하나인 희양산파의 종찰宗刹로서, 879년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지선(智詵 : 智證國師)이 창건한 이래 현재까지 선도량禪道場으로 일관해 온 선찰이다.
7) 이경순, "불교정화운동의 인식과 현재적 의미", 대각사상 제33집, 대각사상연구원, 2020.6., 73-99면; 문찬주, "정화불교운동(1954-1962): 통합주의와 종파주의의 교차로", 대각사상 제14집, 대각사상연구원, 2010.12., 249-290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안필섭 원광디지털대 교수

룸비니 국제 사원 지구 내에서도 한국의
대성석가사는 단연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주지 법신스님의 원력으로 1995년 네팔 정부와
일찍이 계약을 맺고 불사를 시작한 덕에,
후발 국가 사찰들에게 주어진 엄격한 고도 제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평소 거대함을 숭상하는 중국이지만, 사찰 크기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 한국이 서로 뒤바뀐 것처럼
생각될 만큼 대성석가사에 비하면 아담하다.
멀리서도 시선을 압도하는 대웅전은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의 자태를 연상케 한다.
현대적인 재료로 42m에 달하는 웅장한 3층 탑형
전각을 이국땅에 세워 올린 모습을 보면서 숱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워낙 방대한 불사이다 보니 삼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안팎의 단청 공사가 한창이었고, 사찰을
가로지르는 대형 요사채는 이틀 전 국경에서
마주쳤던 수백 명의 순례단을 품어 안을 만큼 광활했다.
이곳은 국적을 불문하고 불교와 한국 문화에
이끌린 배낭여행객들과 수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인류 공동의 영적 쉼터이기도 하다.
요사채 앞마당에서 자라난 아름드리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이었다면 족히 백 년의 세월을
버텨냈을 법한 우람한 풍채였으나, 스님은 나무의
연륜이 고작 삼십 년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었다.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테라이 평원의
기후가 길러낸 경이로운 생명력이었다.
고작 삼십 년의 세월이 이토록 거대한 고목을
키워낸다면, 인간의 손을 전혀 타지 않았을
부처님 당시의 룸비니는 얼마나 압도적인 생명력의
숲이었을까. 만삭의 마야 부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던 것은 대지가 뿜어내는 이 울창하고
무성한 초록의 원시림이었을 터다. 거대한 콘크리트
가람의 마당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대자연의
압도적인 생명력을 다시금 목격하고 있었다.
하루 동안 많은 곳을 둘러보았지만,
이제 룸비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라고 말하는 마야데비 사원을 찾았다.
늦은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했음에도 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지나치게 정돈된
성역의 현대식 개발 탓에, 오히려 대성석가사의
마당에서는 잠시 상상했던 마야 부인의 행렬이
도리어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저 멀리 서 있는 새하얀 사원에 다가갈수록,
쿵쾅거리는 가슴이 드디어 부처님의 탄생지에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신발을 벗어 두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줄을 지어 사원의 내부에 들어섰다. 현대식인 사원 외부의 모습은 너무나 단조로워서 임시로 지은 건물인가 생각이 될 정도였지만, 내부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관람 통로인 나무 난간 아래로 시간의 층위가 눈앞에 펼쳐졌다. 기원전 3세기 아쇼까 왕 시절의 벽돌 구조물이 중심을 차지하였고, 주변으로 후대에 겹겹이 덧씌운 기단과 방의 흔적들이 보존되어 있다.

유적의 가장 중심에는 부처님의 탄생 지점을 표시하는 작은 돌이 놓여 있다. 이른바 마커 스톤(Marker Stone)이다.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아기 부처님의 작은 첫 발걸음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 박제된 인공의 아쉬움을 날려버리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전율이 밀려 들어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했던 체험을 마치고 사원 밖으로 나오니,



아쇼까 석주의 브라흐미 문자



마야데비 사원

뿌슈까리니(Puṣkariṇi) 연못 수면 위로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출산을 마치고, 금빛 아기를 품에 안았던 마야 부인 역시, 2500년 전 어느 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조금 차가워진 공기를 들이마셨을 것이다. 왕비가 느꼈을 기분을 상상해보는 짧은 즐거움에 젖어 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사원 옆에 서 있는 아쇼까 석주(Ashoka Pillar)였다. 기원전 249년 마우리아의 대왕 아쇼까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이곳을 순례하고 석주를 세웠다.

석주에는 "신들이 사랑한 아쇼까 왕이 재위 20년에 이곳을 찾았고, 이곳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성스러운 곳이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룸비니 마을의 세금을 감면한다."라는 내용이 고대 브라흐미 문자로 새겨져 있다.

1896년 이 석주가 땅속에서 발굴되면서, 부처님의 탄생 설화는 비로소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다. 석주를 통해 이곳이 성스러운 장소임을 다시금 자각하는 순간, 마야데비 사원의 새하얗고 단조로운 모습 또한 자기 주장 없이 장소가 가진 본질적인 역사성에 가장 부합하는 건축적 태도라고 수긍할 수 있었다.

사원 앞, 작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아내와 나는 한동안 각자가 마주한 감동과 전율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우리의 대화는 문득 《숫따 니빠따(Sutta Nipāta)》의 한 구절에 닿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직 하나의 뿔처럼,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진리를 향해 홀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

흥미롭게도 아프리카 코뿔소는 두 개의 뿔이지만, 인도 코뿔소는 코뿔이 하나이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이다. 이제 도상 속에 갇혀 있는 무소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진짜 코뿔소를 마주하고 하나뿐인 뿔을 직접 확인해볼 차례다.

"그래, 코뿔소를 보러 가자!"

황급히 스마트폰을 켜 검색해보니 네팔 치트완(Chitwan) 국립공원에 가면 코뿔소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숙소로 돌아와 일정을 살펴보니 2박 3일 정도는 예정을 변경할 여유가 있었다. 호텔 매니저인 수닐(Sunil)을 불러 룸비니에서 치트완을 거쳐, 다시 소나울리 국경을 통과해 꾸쉬나가르, 바이샬리, 빠뜨나, 라즈기르, 보드가야로 이어지는 불교 성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수배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이다. 수닐은 고개를 양옆으로 까딱거리며 문제 없다고 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 내일 아침 우리를 태워줄 차량을 수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과 차량 대절에 꽤나 거금이 들었지만, 가볼 곳은 많은데 교통 여건은 불편한 불교 성지 답사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되었다. 기존에 예약했던 숙박과 기차를 모두 취소하고, 치트완의 강가에 자리잡은 멋진 방갈로를 새로 예약했다. 룸비니의 정적인 고요함이 대자연의 여정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다. 코뿔소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부처님의 탄생과 나의 출생

원경스님 大법주사 강주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미루어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선혜보살은 감격하여 성스러운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 땅이 질척거렸다. 선혜는 곧바로 사슴가죽 옷을 벗어 덮었지만 진흙을 다 가리기에는 부족하였다. 묶었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남은 부분을 마저 덮고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곳을 밟고 지나가소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어찌 밟겠는가." "오직 부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연등불께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말씀하셨다. "백 겁의 세월이 흐른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여 여래 등정각이 되어 석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출판사

석존은 연등불의 수기를 받고 마지막으로 도솔천에 태어나 호명〔선혜〕보살로 있으면서 4천 년 동안 하늘의 무리를 교화하시었다.

보살은 염부제에 하강할 시기가 이르렀음을 알고 곧 다섯 가지 인연을 관찰하였다.

첫째, 모든 중생의 근기根機가 성숙하였는가.

둘째, 교화를 펼 때가 되었는가.

셋째, 모든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를 택하여 하강할 것인가.

넷째, 모든 종족 중에서 어느 종족이 가장 존귀한가.

다섯째, 누구에게 마땅히 부모가 될 만한 인연이 있는가.

보살은 마침내 중생의 근기가 성숙하였음을 보았고,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염부제의 카필라가 하강하기에 가장 마땅한 곳이며, 샤카족의 슛도다나왕 부부가 부모 될 만한 인연이 있음을 알았다. 《불본행집경》

하나의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요약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즉 태어나는 날〔생일〕, 태어나는 부모와의 인연〔양친〕, 태어나는 국토〔고향〕이다. 만일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떤 존재도 태어날 수 없다. 석존께서도 세 가지를 선택하여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 석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원력의 방편으로 인간의 몸에 의탁하게 된다. 그래서 석존은 법보화〔法報化〕 삼신三身 가운데 천백억의 화신化身에 속하는 것이다. 불보살님은 원력화생願力化生으로 몸을 받는다. 그러나 중생은 업력業力의 결과로 중생의 몸을 받는다. 나의 업력에 일치하는 부모를 자동으로 동류의 에너지 파장으로 이끌려 선택하여 새로운 존재를 부여받는다. '선택'이라는 말이 무색하지만 그래도 출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야부인은 잉태하고 나서 여섯 개의 상아가 있는 흰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회색이다. 그러므로 흰색의 코끼리는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또한 코끼리는 초식동물이면서 가장 거대한 몸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야부인이 꾼 태몽은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원하는 부귀와 권위〔지혜와 자비〕를 가진 인물이 태어나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세상을 태평성대로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모든 중생을 진리로 구제할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상징을 코끼리 태몽으로 담아낸 것이다.

해산 달이 다가오자 마야부인은 전통에 따라 출산을 위해 친정 마을로 가게 되었다. 룸비니 동산에 도착하여 잠시 쉬는 도중 산기를 느껴서 무우수나무 가지를 잡자 바로 오른쪽 옆구리로 아이가 태어났다. 마야부인의 출산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은 석가족이 인도의 4성계급〔카스트제도〕 가운데 크샤트리아〔왕귀족 무사〕에 속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힌두교에 따르면 창조신 브라흐마가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의 신체 부위에서 네 가지 카스트 계급이 발생했다. 브라만은 브라흐마의 입에서 나왔고, 크샤트리아는 그의 팔〔어깨〕에서 생겨났고, 바이샤는 허벅지에서 생겨났다. 끝으로 수드라는 브라흐마의 발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기는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하였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를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吳當安之〕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밝게 빛났다.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홉 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다.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출판사

싯달타 태자의 탄생 장면은 보통 아이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불전문학에서 태자의 탄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태자가 탄생하자마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일곱 걸음 걸으면서 사자후를 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보통의 아이라면 '응애'하고 우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태자는 손발을 움직이고 심지어 걷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태자는 4천하에서 절대적으로 하나인 대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자후를 전하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개인으로서 나만이 유일하게 가장 존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 장차 태자가 법왕인 부처가 되어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게 될 것이라는 인간 해방의 선언인 것이다.

룸비니 동산에서 강탄한 태자의 신이한 행동은 이것으로 마무리된다. 대지도론에서 그 이유를 기술한 부분이 나온다. 이후 태자는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석존을 따라 수행하여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너무 비범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석존을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생에 따라 비천한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에 따라 고귀한 사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비천한 사람이 결정되고,
행위의 결과에 따라 고귀한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다."

大법주사와 함께하는

따뜻한 신행단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나누는 자리, 함께하는 신행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마음이 모이면 기도가 되고, 실천이 모이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관음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며 이웃을 돕는
자비행 모임

국악합창단



국악의 아름다움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신심을 배우고
나누는 모임

다도회



차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의 기쁨을 나누는
수행 모임

법주회



대법주사와 함께 하는 신심있는
신도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하나인
보시행을 봉사와 신행을 통해
실천하는 모임

보현회



보현보살님의 행원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모임

불교대학교



불교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는
공부 모임

지장회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을 본받아
불자들과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모임

다문화여성불자회



다문화 가정 불자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문화와 마음을 잇는
따뜻한 신행 공동체

신행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할때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大법주사 신행단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해 보세요

大법주사 가입안내 043-543-4755 (원주실)

大법주사

국악합창단 단원모집



한 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전통의 울림과 수행의 마음을 함께 나눌
大법주사 국악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국악을 사랑하고 함께 배우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갈
大법주사 신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도교수 및 예술감독

함수연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 제23회 명창박록주 전국대전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 수상)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박사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사 졸업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충북지회 지회장
- 大법주사 국악합창단 지도교수 및 예술감독

연습일시	장 소	모집대상	활동내용	함께하는 기쁨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매월 1·3째주 大법주사 국악연습실 • 매월 2·4째주 청주불교방송국	大법주사 신도 및 관심있는 분	찬불가 · 민요 · 전통국악 합창 공연 및 봉사활동	전통국악의 울림으로 신심을 다지고 아름다운 인연을 나눠보세요



大법주사 문의 043-543-4755

23·24·25년 최우수 템플스테이
大 법 주 사

마음을 비우다 쉼 마음을 채우다



당일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大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저녁/새벽예불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향기명상 (Aromatherapy)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선명상 (1박2일, 2박3일)
–수정봉 걷기 명상
–스님과 차담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나한도량 성지순례안내



속리산 大법주사에서는 대중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함께 정진하며 업장을 소멸하고 무량한 공덕을 쌓고자, 매월 전국의 영험한 나한도량 성지순례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나한도량 성지순례는 나한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각자의 서원을 발하여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거룩한 구법求法의 길입니다. 나한님의 영험한 가피를 입고 가정의 평안과 자손창성, 그리고 각자의 서원을 성취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1차 성지순례** – 설악산 백담사 (6월 17일 예정)
- **모집인원** – 대전 / 청주 / 보은지역 각1대 (선착순마감)
- **동참보시** – 1인 5만원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2026. 6 大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4.16 미륵재일	2 17	3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4 19	5 20	6 21 광명진언기도 현충일 망종
7 22	8 23 하안거 포살 교구종회	9 24 관음재일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5.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16 2	17 3 신중기도회향 나한도량 성지순례	18 4	19 단오 5	20 6 다라니독송기도 탄성대종사 다례
21 하지 7	22 8 약사재일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보름	30 16 미륵재일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7시 30분, 8시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大법주사 소식







도민안녕기원법회 — 가사불사 회향식








미륵대불 회향식 — 산신기도 — 보청천 문화축제







보청천문화축제 | 스승의날 | 신도임원진공양 | 4월초하루법회 | 사천왕문 수리점검









청주중앙공원급식봉사 | 청원경찰서봉축법회 | 천년의향기 | 봉축-법요식 | 봉축-관불의식







봉축-법고시연 | 봉축-신도자녀장학금전달식 | 봉축-육법공양 | 봉축-어린이체험 | 봉축-제등행렬




기획국장 임명(석중스님) | 포교국장 임명(연옥스님)

말사소식





주지임명 태전사(도일스님) | 주지임명(현월암 법산스님) | 반야사 재산관리인 위촉(진천스님)

미륵재일기도 – 6월 1일 월요일, 30일 화요일 오전10시 미륵전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자비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용화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기도로 매월 음력 16일 봉행됩니다.

지장재일기도 – 6월 3일 수요일 오전10시 명부전 〈차량운행-청주지역〉

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소멸과 살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발원 기도입니다.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6월 6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훔"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빛을 관상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지혜를 깨닫는 진언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6월 15일 월요일 오전10시 대웅보전 〈차량운행-보은/청주/대전지역〉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정성을 다해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간의 평안과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입니다. 매월 새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닦고 복을 기원하는 신심의 발로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6월 20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으로 내 안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중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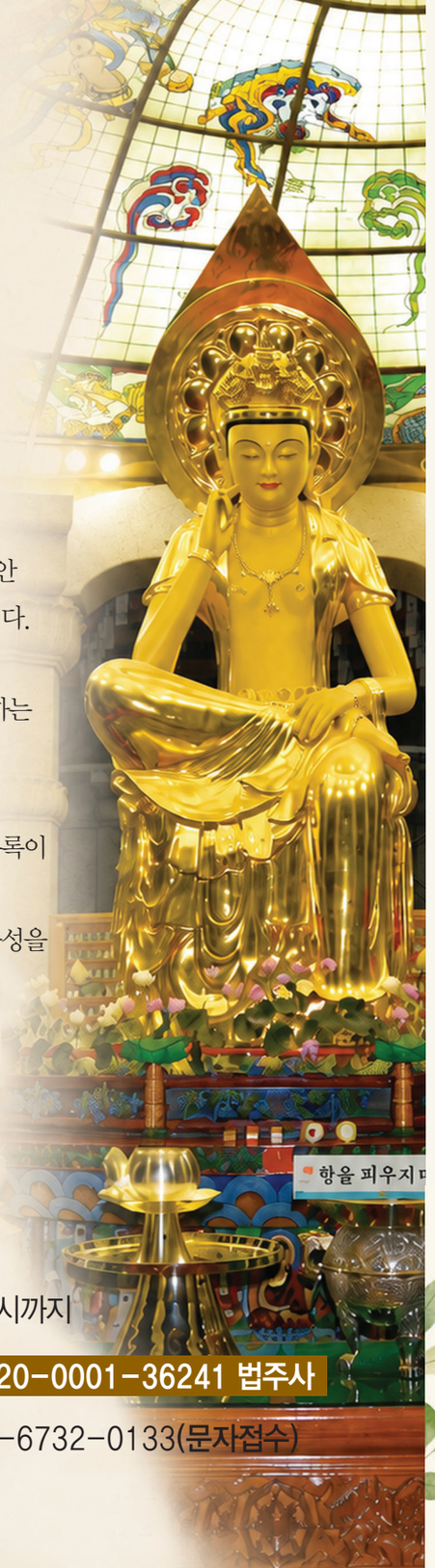
더없이 귀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좋은 기운을 채워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께 축원올리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 043)543-4755 문자 • 카톡 010-6732-0133으로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당일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大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안내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무량한 공덕의 불사에 인연을 맺으소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大법주사의 정신적 귀의처인 미륵전 내부의 미륵반가사유상은 오랫동안
수많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와 발원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부처님의 금빛 안색이 퇴색되고 도포가 마모되어
금번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형상을 새롭게 황금빛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설삼세인과경》에 이르기를, “금생에 몸이 장엄하고 용모가 수려한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불상에 금을 입힌 공덕이요, 의복이 풍족하고 복록이
구족한 이는 부처님을 잘 공양한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금불사는 단순한 보수 작업이 아니라, 퇴색된 우리 마음의 자성을
닦아내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나투는
가장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부처님 몸에 금 한 조각을 올리는 정성은
법계의 지극한 공덕이 되어,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선망조상,
그리고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무량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세생생 삼대의 가족이 공덕의 보탑을 쌓는 이 거룩한 인연에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수희 동참을 발원합니다.

동참기간 2026년 **6**월 부터 2027년 불사원만성취시까지

불사동참 1인 1구좌 **10**만원 **동참계좌 : 우체국 120-0001-36241 법주사**

접수안내 大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승보공양은 가장 법다운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려복지 후원 안내

승보공양 후원은 스님들이 노후나 병고의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요양비, 수행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재 35분의 교구스님께 신도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공양을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교의 수호와 홍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후원동참자

권온자 김규영 김길환 김명숙 김순자 김창순 김태홍 민혜숙 박근식 박노근 백동윤
안미영 연용덕 유원섭 이시영 이은자 장애경 정명규 최규연 최성락

승보공양 동참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